



주사제를 이용한 '사마귀 치료'

조선대병원 피부과 신봉석 교수

끈질긴 사마귀 'MMR주사' 3방이면 '끝'

〈홍역·볼거리·풍진 예방접종〉

사마귀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으로 피부 및 점막의 양성 증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병변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이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매개물을 접촉해 감염돼 노출 부위인 손, 발, 다리, 얼굴에 주로 발생하기도 하고, 성 접촉을 통해 성기에도 잘 발생한다.

어린이나 젊은 성인의 10% 정도에서 흔하게 발생한다. HPV의 감염은 병변의 위치, 감염된 바이러스의 양, 접촉하는 정도 및 일반적인 면역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사마귀는 미용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사마귀가 생긴 신체부위를 따라 걸을 때나 물건을 잡을 때, 성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병변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다만 소아의 경우 저절로 소실되는 경우가 있지만, 새로운 병변이 발생하거나 바이러스가 다른 부위로 쉽게 퍼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법의 선택
치료는 사마귀의 위치, 크기, 숫자, 이차세균감염의 유무, 환자의 나이, 성별 및 면역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사마귀의 치료결과는 정상조직의 손상을 최소화 하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마귀 병변을 파괴하는가에 달려 있다. 현재 사용되는 사마귀 치료법은 완치율이 약 50%정도이며, 재발률은 평균 25~50%이다.

▲냉동치료=사마귀 치료법으로 대부분의 사마귀에 효과적이다. 기본적인 냉동치료는 액체질소(-196℃)를 면봉이나 냉동분사기를 이용해 사마귀 병변을 포함한 주변의 정상피부 1~2mm 정도가 하얗게 될 때까지 냉동건이나 면봉으로 10~30초간 얼린 후 해동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2~3주 간격으로 치료해야 한다. 완치율은 50~70%이며, 재발률은 20~30%이다. 냉동치료는 통증이 심하고, 치료 후에 물집이 발생하며, 저색소 및 과색소 침착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를 강하게 할 경우 신경손상이 될 수 있어 손가락이나 성기부위를 치료할 때는 주의해야 하며, 손발톱 사마귀의 경우 손발톱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국소도포제=바르는 치료로는 포도필린, 살리실산, 삼염화아세트산 도포 등이 있다. 포도필린 국소도포법은 성기사마귀나 표면의 각질 덩어리를 제거한 사마귀에 효과가 있다. 일주일에 한번씩 도포하며, 도포 4시간 후에 비누를 이용해 씻어내야 한다. 완치율은 30~60%이며,



신봉석 조선대병원 피부과 교수가 손등에 사마귀가 생긴 회사원에게 항암치료 주사를 놓고 있다.

〈조선대병원 제공〉

조선대 병원 국내 최초 획기적 치료법 효과 입증

2주 간격 3~6회 주사... 절반 이상이 완치·호전

재발율은 매우 높으며 30~70% 정도이다. 도포부위의 자극감이 15%정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전신으로 흡수될 경우 저칼륨혈증, 말초신경병증, 면역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병변이 10cm 미만인 곳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점막이 맞닿는 입, 질 및 항문 안의 병변과 임신부, 유아에게 사용하는 것은 금기이다. 살리실산 도포는 감염된 조직의 탈락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하루에 2~3차례 도포할 수 있다. 완치율은 75% 정도로 보고됐다. 국소적 자극감이나, 피부탈락이 발생할 수 있다.

▲레이저 치료=레이저 치료법으로는 CO2 레이저 및 pulse-dye레이저(PDL) 등이 있다. CO2 레이저는 표재성 병변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PDL은 깊은 병변의 혈관을 소작시킴으로써 치료하는 방법이다. 치료는 한 달 간격으로 2~3차례 필요하며 완치율은 100%정도 까지 보고됐다. 하지만 높은 재발률과 마취가 필요하다는 점이 단점이다.

▲항암주사 병변내요법=병변내 주사 치료로는 5-FU 및 Bleomycin 등이 있다. 5-FU는 감염된 세포에서 DNA와 RNA의 합성을 방해해 항암치료약제로 1

주일 간격으로 한차례 병변내에 주사하는 치료법으로 4주간 치료했을 경우 65%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 Bleomycin은 HPV의 감염된 세포의 DNA 구조의 분해를 유발해 세포증식을 억제하는 또다른 항암치료 약제로서 0.1% Bleomycin을 병변내 주사했을 경우 76%까지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면역 요법=면역치료는 최근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경구 씨메티딘은 히스타민 H2-receptor 길항제로 면역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사마귀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2개월동안 씨메티딘을 복용했을 경우 81%까지 병변이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면역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아연을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아연이 결핍돼 있을 경우 림프구 감소증을 야기해 사마귀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아연을 2개월 동안 복용했을 경우 86.9%정도까지 병변이 치료됐다. 하지만 아연은 오심, 구토 및 상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병변 내 면역주사 요법은 최근 약 10년 전부터 사용해오던 방법으로 사마귀의 증식이 세포매개성 면역에 의해 조절된다는 가정하에 적

절한 항원 등을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 사마귀의 종류에 따라 50~80%정도로 치료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재발을 낮춘 최신 치료
최근 조선대병원 피부과에서는 국외학술지에 여러 부위에 다발성으로 발생한 사마귀를 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MMR)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을 국내 최초로 발표하였다. 2년 이상의 치료 경험상 다발성 사마귀에 대해 2주 간격으로 3~6회 MMR 면역주사 환자중 절반 이상에서 완치되거나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MMR 면역주사 치료는 소아기에 정상적으로 시행하는 예방접종과 같은 주사제, 이를 이용한 면역치료는 주사 시 통증 외에 주사 후 발다른 불편감이나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다. 또 병변이 다발성인 경우에도 단 하나의 병변에만 단 한번의 주사로 전체 병변이 좋아지고, 5.6%의 매우 낮은 재발율을 보였다. 점 등 기존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치료효과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면에서 획기적인 치료라는 것이 입증됐다.

사마귀의 치료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예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마귀 병변과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예방법이며, 성기사마귀만이 HPV의 백신인 가다실과 서바릭스를 주사해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리=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고기는 굵기보다 삶아먹고 곰팡이 핀 식품은 버려야

생활 속 음식물 유해물질 줄이려면...

무심코 음식을 조리하거나 생각없이 음식을 보관할 경우 유해물질을 섭취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상 생활에서 식품의 조리·보관에 조금만 주의하면 벤조피렌, 아크릴아마이드, 곰팡이 독소 등과 같은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며, 생활속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리 및 보관방법을 제공했다.

◇소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 조리시 유해물질 줄이는 방법

육류를 조리할 때는 굵는 조리방법보다 삶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것이 벤조피렌이나 폴리염화비페닐을 줄이는데 좋다.

벤조피렌의 함량은 삶는 조리법으로는 돼지고기·쇠고기 모두 0.1ng/g이하의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반면, 구이를 이용한 조리법으로는 돼지고기의 경우 평균 0.77ng/g, 쇠고기의 경우 평균 0.13ng/g의 벤조피렌이 생성된다.

또한 육류의 지방에 주로 포함돼 있는 폴리염화비페닐은 육류에 평균 0.26ng/g이 들어있는데 굵는 경우는 0.13ng/g으로 50%나 감소하고, 삶는 경우에는 0.07ng/g으로 73% 줄어든다.

벤조피렌은 고열처리(300~600℃)과정에서 유기물질이 불안정 연소되어 생성되는 유기물질이며 식품의 조리·가공시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이 분해되어 생성되기도 한다.

◇육류를 굵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고기가 불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석쇠보다 불판을 사용하고 불판을 자주 교환하며, 구이 과정 중 탄 부위는 제거하여 섭취하는 것이 벤조피렌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육류를 굵기 전 양념과정에서 후추를 넣거나 후추를 뿌려 굵는 경우가 있는데 조리 과정 중에 후추를 넣게 되면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이 증가하므로 후추는 조리 완료된 후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추에 들어 있는 아크릴아마이드 함량은 평균 492ng/g수준이며, 후추를 넣고 볶은 조리시에는 5485ng/g, 튀김 조리시 6115ng/g, 구이 조리시 7139ng/g으로 각각 약 10배 이상 증가한다.

◇곡류 등의 곰팡이독소를 줄이는 방법
곰팡이가 핀 식품을 세척하거나 가열해 곰팡이를 제거해도 아플라톡신(Aflatoxins)과 같은 곰팡이 독소는 잔류할 수 있으므로 곰팡이가 핀 식품은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

아플라톡신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물질로 간암 등을 유발하고 쌀, 보리, 수수 등 탄수화물이 풍부한 곡류에서 발견될 수 있다. 고온 다습한 장마철에는 곰팡이가 잘 자라므로 온도가 10~15도 이하, 상대습도 60% 이하인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재료를 운반·보관할 때는 자동차 트렁크나 햇빛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하는 대신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과일·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하기를 당부했다. 조리할 때 주의 사항으로는 ▲바비큐 등은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 조리하기(85도, 1분 이상) ▲생고기 조리 시 사용한 젓가락 등을 익힌 음식을 집거나 섭취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의 중간 숙주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하기 등을 권고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장재원 교수의 '허리 좀 펴고 삼시다'

광주일보 제9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2일 오후 2시, 전남대병원 5동 강당



광주일보사와 전남대병원은 오는 22일 제94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나서 강연하고,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강의 내용은 오는 25일 광주일보에 게재된다.

이번 강좌는 요추관 협착증 등 허리 관련 질환을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신경외과 장재원 교수로,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요추관 협착증,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 골

절, 요추 퇴행성 후만증의 증상, 치료 방법 및 예방 등에 대해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소개된다.

장 교수는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뇌혈관신경외과학회, 대한말초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대한외상학회 등의 학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문진료분야는 척추변형, 척추 및 척추손상, 두부외상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홍보지 및 판촉물

●전단지

●현수막

●상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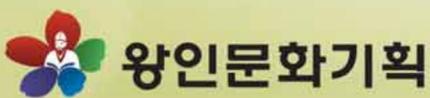
●전단지

●각종 인쇄물

●현수막

●각종 인쇄물

●홍보지 및 판촉물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